

폭염·장마에 채소가격 ‘폭등’...정부 비축 물량 쏟아

지난달 배추가격 전월대비 54% ↑
롯데마트, 반값 배추 1만5천톤 공급
홈플러스, 물가안정 배추·대파 선택
이마트, 흙대파·한우등심 할인 판매

최근 장마와 폭염 등으로 채소값이 폭등한 가운데 대형마트들이 정부 비축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는 등 채소 물가 안정화에 나섰다.

5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초부터 이어진 장마와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한 병충해 영향으로 채소값이 급등했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배추 1포기 소매가격은 5542원으로 전월 대비 54% 올랐다. 전년과 비교해도 30% 이상 비싼 가격이다.

이에 롯데마트는 정부 비축 물량을 확보해 ‘반값 배추’를 내놓았다. 롯데마트는 7일까지 시세보다 50%가량 저렴한 정부 비축 상생 배추를 2900원대에 판매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정부 비축 배추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간 산지 수확돼 저장성이 좋은 봄배추로, 롯데마트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사전 협의해 약 2만5000톤의 물량을 확보했다.

또 문경, 의령 등 산지와와 협력을 통해 장마 이전에 수확한 200여톤의 저장 배추 약 7만5000통가량을 사전 확보해 이달 말까지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오는 15일까지 유명산지 2024년산 햇건고추 사전 예약 판매도 진행한다. ‘영양세절 건고추(3kg)’는 행사 카드 결제 시 시세보다 20%가량 저렴한 9만9000원대에 만나볼 수 있으며, 경북 우수산지인 영

주, 봉화, 안동의 ‘화건초(1.8kg)’ 역시 행사 카드 결제 시 3만9000원대로 판매한다. 사전 예약 기간 동안 롯데마트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너 또는 롯데슈퍼 계산대를 방문해 접수한 뒤 29일부터 31일까지 원하는 일자에 접수한 점포에서 상품을 수령하면 된다. 회파 고객에 한해 ‘무료 제분 서비스’도 제공한다.

홈플러스도 전국 점포에서 오는 9일과 17일 반값 ‘물가안정 배추’를 판매한다.

‘물가안정 배추’는 지난 6월 수확한 정부 비축 배추다. 물류비, 인건비, 부자재비 등을 최소화해 일반 배추 대비 약 50% 저렴하다. 판매 가격은 1포기당 2900원대로, 1인당 2포기까지 구매 가능하다.

8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점포에서 일반 대파보다 20~30%가량 저렴한 ‘산지 그대로 대파’도 선보인다.

‘산지 그대로 대파’는 흙을 완전히 털지 않고 산지에서 수확한 그대로 판매하는 상품이다. 일반 대파는 협력사를 통해 예냉 후 손질과 포장 과정을 거치지만, ‘산지 그대로 대파’는 물가안정을 위해 상품화 과정을 대폭 축소하고 가격을 낮췄다. 상품화 과정을 축소했지만 신선도는 더 높다. ‘산지 그대로 대파’는 현장에서 기본적인 손질만 하고 바로 고객을 만난다.

홈플러스는 지난 6월 24일 ‘산지 그대로 대파’를 시범 판매했으며 판매 당시 준비한 물량이 하루 만에 완판되는 등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이후 점포 수를 늘리며 지난달 24일까지 20개 점에서 시범 판매한 결과, 대부분의 물량이 하루 안에 전부 소진됐다.

이에 홈플러스는 경기도 여주·이천과 경상북도 김천 등에서 ‘산지 그대로 대

파’ 물량을 7만 단 확보했다. 전국 홈플러스 점포에서 한 단 1900원대에 판매하며, 1인당 2단씩 구매할 수 있다.

이마트 역시 오는 29일까지 장바구니 필수 채소인 ‘흙대파(봉)’를 직전 판매가 대비 20% 할인한 1900원대에 판매한다.

또 한우 시세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를 돕기 위해 채소와 함께 먹기 좋은 등심도 할인한다. 8월 ‘가격과 격 선언’ 상품으로 인기 품목인 한우 등심(1등급/1+등급)을 정사가 대비 약 30% 할인 판매한다. 일반 한우 등심 1등급(100g, 냉장)은 6900원대, 1+등급(100g, 냉장)은 7800원대에 준비했다. 8일까지 ‘브랜드 한우 전품목(냉장·국내산)’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4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일 예정이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롯데백, ‘두바이식 초콜릿’ 선택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하1층 폴바셋 앞 매장에서 최근 SNS를 통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식 초콜릿 팝업행사를 오는 8일까지 진행한다. 두바이에서 직수입한 피스타치오 원물로 만든 수제 페이스트와 카다이프편을 원재료로 사용해 더욱 고소하고 풍미 가득한 두바이식 초콜릿을 만나볼 수 있다. 예쁜 포장에 담아낸 두바이식 초콜릿 한개 가격은 1만9500원이며 일별 준비된 물량만큼만 한정으로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상의, 자동차산업 고용·근로환경 개선사업 추진

부품업체·현대기아 협력사 대상
기숙사 월세·건강검진비 등 지원
제조업체 근로자 복지향상 기대

광주상공회의소가 ‘자동차산업 고용·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5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자동차산업 고용·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원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이 사업은 관내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과 현대차·기아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숙사 임차비(월세)·건강검진비 지원, 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기숙사 임차비 지원’은 기업이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1호(실)당 월 최대 30만원의 임차비(월세)를 지원하고, ‘건

강검진비 지원’은 기업이 검진기관 및 병원에서 근로자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경우 1인당 최대 30만원의 검진비를 지원한다.

‘공동이용시설 개선’은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휴게실, 샤워실, 화장실 등 근로자 복지와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최대 600만원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숙사 임차비 지원과 건강검진비 지원은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공동이용시설 개선은 오는 30일까지 신청받은 후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으로 수혜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채화석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임금·복지격차 확대 등 일자리 이중구조 문제로 관내 자동차산업 근로자의 이탈과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 대표산업인 자

동차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여건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상의는 현대차·기아 협력사를 포함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장려와 기업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일자리 채용 지원금과 도약 장려금 참여 근로자 및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채용 지원금은 만 15세부터 59세 이하 신규 취업자에게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도약 장려금은 만 35세부터 59세 이하 근로자 신규 채용 기업에게 연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채용 지원금은 9월20일까지, 도약 장려금은 오는 31일까지 채용된 근로자에 한해 신청받을 예정이며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상공회의소 협력사업본부로(062-350-5894, 5898) 문의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광주은행, ‘Wa! 매주 누워서 돈벌기’ 이벤트

커피·주유 쿠폰 등 제공

광주은행은 5일부터 12월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커피 한 잔과 주유 쿠폰으로 힐링타임을 가져볼 수 있는 ‘Wa! 매주 누워서 돈벌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광주은행 ‘Wa뱅크 스텔스통장’에 이벤트 조건 금액을 넣어두면 매주 쿠폰을 제공하는 실속 있는 이벤트로, 광주은행 신규 고객 또는 Wa뱅크 스텔스통장 출시일 전 6개월(2023년 10월 22일~2024년 4월22일) 동안 입출금 통장의 평균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세부 내용은 이벤트 기간(20주)동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본인 명의의 Wa뱅크 스텔스통장 평균 잔액을 300만원 이상 유지 시 커피즈 아이스 아메리카노 1대 △1000만원 이상 유지 시 5000원권 쿠폰 1매(GS칼텍스 또는 GS25편의점 사용 가능)를 매주 수요일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매주 새롭게 참여할 수 있어 비상금이나 여윌돈이 생긴다면 7

일간 보관 시 경품을 제공받을 수 있고, 조건 만족 시 매주 중복 지급이 가능해 1인당 최대 20회까지 경품 수령이 가능하다. 단, 한 주차당 경품 중복 지급은 불가하며, 예산 소진 시 이벤트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Wa뱅크 스텔스통장’은 소중한 개인정보의 외부 노출을 기피하는 트렌드에 맞춰 지난 4월 광주은행이 새롭게 출시한 비상금 통장으로, 마이데이터나 오픈뱅킹 서비스에서도 계좌 상황을 조회할 수 없고 오직 나만 조회할 수 있는 입출금통장이다. 이벤트 참여는 광주 Wa뱅크(APP)에서만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 Wa뱅크,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변미경 디지털금융센터장은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비상금을 넣어두기만 해도 매주 쿠폰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간편한 참여 방법과 더불어 흥미로운 이벤트를 기획해 고객들이 금융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한국양궁 전종목 석권...현대차 40년 지원 ‘뒷받침’

현지경기장 본뜬 훈련장 등 지원
정의선 회장의 세심한 격려 ‘한몫’

한국 양궁이 2024 파리올림픽에서 사상 처음으로 5개 전 종목 금메달을 획득한 가운데 이같은 대기록은 선수들과 코치진들의 피나는 노력을 뒷받침해 주는 대한양궁협회 정의선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대차그룹의 지원이 컸다는 분석이다.

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1985년부터 40년간 한국 양궁이 세계 최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는 국내 단일 종목 스포츠단체 후원 중 최장기간 후원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파리올림픽을 위해 선수들의 경기장 적응, 소음 적응 훈련 등을 지원했다. 먼저 양궁경기장인 앵발리드 경기장과 똑같은 시설을 진천선수촌에 건설했으며 대회에서 예상되는 음향, 방송 환경 등을 적용해 모의대회도 진행했다.

앵글리드 경기장이 파리 센강에 인접해 있어 바람 변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주 남한강변에서도 적응훈련을 시행했다. 또 전북현대와 FC서울의 경기를 앞두고 대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지난 4일(현지 시각) 파리 대회에서 양궁 3관왕에 오른 김우진을 축하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규모 관중 앞에서 약 40분가량 남자선수들과 여자선수들이 각각 팀을 이뤄 실전과 같은 방식으로 경기를 펼치기도 했다.

현지에서는 앵발리드 경기장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의 스포츠클럽을 통째로 빌려 양궁 국가대표팀만을 위한 전용 연습장을 마련해 통상 출국 날짜보다 4일 정도 빠른 지난달 16일 출국해 체계적인 훈련을 진행, 시차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한 훈련장비 및 기법 개발 지원에도 힘을 쏟았다.

그룹의 R&D 기술을 활용, △선수와의 일대일 대결을 펼치며 경기 감각을 향상하는 ‘개인 훈련용 슈팅로봇’ △슈팅 자세를 정밀 분석해 완벽한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야외 훈련용 다중카메라’ △어디에서든 활 장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활 검증 장비’ △직사광선을 반사하고 복사에너지 방출을 극대화하는 신소재를 개발해 적용한 ‘복사냉각 모자’를 지원했다.

현대차그룹의 지원과 더불어 양궁협회 정의선 회장의 세심한 격려도 한몫했다. 정 회장은 파리대회 개막식 전에 현지에 미리 도착해 선수들의 전용 훈련장과 휴게공간, 식사, 컨디션 등 준비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했고, 양궁 경기 기간 내내 현지에 체류하며 선수들의 컨디션까지 챙겼다. 한국 여자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10연패를 달성한 시상식에서는 선수들 한 명 한 명에게 부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또 여자 개인전에서 아쉽게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전훈영 선수를 별도로 찾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소영 기자